

가족적응성, 응집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on Marriage Satisfaction and Distress of Married Couples*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고정자
강사 김갑숙

Dept. of Home Management, Dong-A Univ.

Professor : Jung Ja Ko

Lecturer : Gab Sook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on marriage satisfaction and distress of married couples.

For the data set 434 married couples living in Pusan, Korea were chose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M, SD, t-test, factor analysis, MANOVA, scheffe-test,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d path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arital satisfaction is higher for husbands than wives.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stress are higher for wives than husbands.

Second, married couples who perceived family adaptability to be higher level are higher marital satisfaction. And husbands who perceived family adaptability to be higher level are higher physical distress than other levels of adaptability.

Third, husbands who perceived family cohesion to be higher level are higher marital satisfaction, and are lower psychological and physical distress than other levels of adaptability. Wives who perceived family

* 본 연구는 1998년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hesion to be higher level are higher marital satisfaction, and are lower psychological distress than other levels of adaptability.

Fourth, for husbands, family adaptability, cohesion and marital satisfaction have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distress. Besides, family cohesion are indirectly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and physical distress.

For wives, family cohesion and marital satisfaction have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psychological distress. Besides, family cohesion are indirectly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and physical distress.

I. 서론

가족은 성인 남녀의 결합으로 성립되어 부부관계로부터 시작되므로 부부가 가족의 중심이 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으로 변화되고, 가족규모 또한 소인수가족으로 변모되고 있어 부부중심의 가족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부부관계가 부부 자신뿐 아니라 전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부간의 상호작용과 더불어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를 파악하는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결혼만족에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1960년대는 교육수준, 수입, 결혼기간, 연령, 직업 등의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이, 1970년대에는 애정, 성, 의사소통, 동료감, 역할기대, 역할평가 등의 상호작용 요인과 의견일치, 성역할태도, 자아개념 등의 사회심리적 요인 등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최규련, 1987)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가족연구에서는 체계론적 관점을 강조하여 적용시키는 경향이 증가하여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가족체계의 기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가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Olson의 순환모델과 Beavers의 체계모델을 들 수 있다. 이 두 모델은 가족기능을 측정하는데 있어 중요영역으로 응집력과 적응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Olson과 그의 동료들은 변화와 적응에 있어 곡선관계를 주장하여 안정지향성과 변화지향성이 균형을 이루는 가족이 기능적인 가족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Beavers와 그의 동료들은 성장의 관점에서 직선

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융통성과 적응력이 높은 가족이 기능적인 가족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Olson, Sprenkle, Russel (1979)이 제시한 가족체계 유형을 적용하여 부부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나 결과는 Olson의 순환모델의 곡선성과 선형성에 대한 결과가 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특성과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어느 것이 잘 적용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가족내의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적응을 요구하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변화에 잘 적응하는 가족이 있는 반면, 다른 가족은 심한 스트레스로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즉 가족체계론적 관점에서 가족체계가 역기능적일 때 개인 및 가족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특히 가족문제 중 부부간의 갈등은 전체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며, 주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주부의 신경증 발병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김명정, 김광일). 이와 같이 가족체계는 부부간의 결혼만족도와 디스트레스 수준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관계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가족체계의 기능성을 부부관계와 관련시킨 연구로는 가족체계와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 많으며(이현옥 등, 1989; 정민자, 1992; Hansen & Johnson, 1979), 부부적응(김윤희, 1989), 가족복지(김정옥, 1995), 부부의 심리적 적응(최규련, 1995) 등이 있다. 선행연구 결과 가족적응성, 응집성은 결혼만족도와 디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결혼만족도 또한 디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는 변수들을 부분적으로 적용시켰을 뿐 가족체계와 결혼만족도, 디스트레스를 관련시켜 인과관계를 살펴본 것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lson 등이 제시한 FACES를 기본으로 가족체계에 따라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디스트레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디스트레스 수준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고, 나아가 가족체계와 결혼만족도, 디스트레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가족적응성, 가족응집성, 결혼만족도와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 수준은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가족적응성 수준에 따라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셋째, 가족응집성 수준에 따라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넷째, 가족적응성, 가족응집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가족적응성, 가족응집성

Olson 등은(1979, 1983, 1985)은 가족기능을 설명하는 것으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의사소통을 제시하였다. 의사소통은 가족상호간의 응집력과 적응력을 원활하도록 하는 촉진영역으로 보고 순환모델에는 직접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며,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을 통합하여 순환모델을 제안하였다.

가족응집성은 가족구성원들이 상호간에 가지는 정서적 유대(Olson, Russell & Spenskel, 1983)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족의 정서적 유대, 가족의 지지, 가족원간의 경계, 가족공동시간과 친구관계 및 가족의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관심 등 5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응집성의 수준에 따라 과잉분리, 분리, 연결, 속박의 4가지 수준으로 분류된다.

적응성은 가족체계가 상황적, 또는 발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반응하여 가족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의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적응성에는 가족의 지도력, 통제, 훈육, 역할 및 규칙에 대한 5가지 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적응성 수준에 따라 경직, 구조적, 융통성, 혼돈의 4가지 수준으로 분류된다.

Olson 등(1979)은 순환모델을 사용하여 응집성과 적응성이 중간수준에 있는 균형가족이 가장 기능적이며, 응집성과 적응성이 모두 양쪽 극단에 위치하는 극단가족을 가장 역기능적 가족으로 보고 체계 유형이 임상가족과 정상가족을 잘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Olson의 순환모델은 극단가족보다 균형가족이 보다 만족도가 높고 적절하게 기능한다는 데 전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순환모델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연구에서 순환모델의 곡선성을 비판하고 응집과 적응성은 가족의 기능과 선형적 관계가 있음이 많은 연구에서 지지되었다(Barnes & Olson, 1985; Beavers, Hampson, Hulgus, 1985; Pratt & Hansen, 1987; Perosa, 1990; 고승자, 1985; 홍성에, 환경미, 1990; 김수연·김득성, 1993; 전귀연, 1993).

한편 Beavers와 Voeller(1983)는 '증가하는 기능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적응력과 가족체계의 기능간에는 직접적이고 직선적인 관계를 나타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융통성과 적응성이 많을수록 가족이 스트레스 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기능적이라고 하였다. Olson(1989)도 정상가족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응집성과 적응성이 가족기능과 선형적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에 Olson 등(1991, 1992)은 FACES III 에 의한 가족체계유형을 수정하여 응집성 수준에 따라 과잉분리, 분리, 연결된, 매우 연결된 집단으로 분류하고, 적응성 수준에 따라서는 경직, 구조적, 융통적, 매우 융통적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정상가족 분류를 위한 4분면의 가족체계유형을 제안하였다. 즉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의 점수를 합하여 낮은 점수부터 높은 점수에 이르

기까지 극단가족, 중간범위가족, 균형가족의 3유형으로 분류하였던 것을 극단가족, 중간범위가족, 약간 균형된 가족, 균형가족의 4유형으로 분류하고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기능적인 가족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수정된 가족체계 분류법에 의한 지속적인 연구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결혼만족도

결혼만족에 대한 연구에서 결혼만족에 대한 개념의 혼란이나 측정방법의 불일치로 인하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결혼만족에 대한 개념은 결혼적응, 결혼행복도, 결혼의 질, 결혼의 안정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만족이란 개인이 가지는 기대와 그 사람이 실제로 받는 보상 사이의 일치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혼만족은 개인이 결혼생활과 배우자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결과 사이의 일치정도로 정의된다(Lenthall, 1977). 또 하나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충족 대 불충족, 행복 대 불행, 유쾌 대 불쾌의 현상으로, 결혼만족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Burr et al., 1979)이나 자신의 결혼생활에서 경험되어지는 선호의 태도를 말한다(Roach et al., 1981).

우리 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결혼만족의 개념을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선호의 태도로 정의하고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결혼만족도로 정의하는 경향이다.

본 연구에서도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의 정도를 결혼만족도로 정의하고 인성 특성, 역할책임, 의사소통, 갈등 해결, 재정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시간관리, 성 관계, 배우자 책임, 가족 관계, 친구관계, 그리고 종교영역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포함시켰다.

3. 디스트레스

복잡한 사회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각 개인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여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개인의 삶에 필요한 역동적인 힘을 제공하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는 많은 압박감으로 심리적 손상을 가져오며 좌절을 경험하게 하므로 정신적 신체적 질병을 야기시키기도 한다(조희선, 1991). 이와 같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 스트레스(Eustress)와 부정적인 스트레스(Distress)로 구분할 수 있다.

디스트레스는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의 결과로서 유쾌하지 못한 것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McCubbin & Patterson, 1981)나, 문제거리나 근심거리가 있을 때 지각하는 심리적 부담이나 긴장 또는 고통스런 상태(이안나 외, 1991)를 말한다.

Veit와 Ware는 정신건강을 부정적 정신건강 상태와 긍정적 정신건강 상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긍정적 상태는 "심리적 복지"로 나타내며, 부정적 상태는 심리적 디스트레스로 '불안', '우울' 그리고 '행동 및 정서적 통제의 상실'을 포함하고 있다. 즉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은 심리적 손상을 많이 받고 있으며 정신건강이 나쁘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디스트레스는 불안, 우울, 신체화 등의 영역이 포함되는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도 디스트레스를 심리적, 신체적 디스트레스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심리적 디스트레스에는 우울, 불안, 자존감 상실 등을 포함시켰으며, 신체적 디스트레스는 가벼운 신체적인 장애를 포함시켰다.

디스트레스에 관련된 연구에서 기혼여성이 남성보다 디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Bernard, 1982; 최동숙, 1989; 고은숙·김명자, 1993) 나타났으며, 높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신경증 발병율도 여성이 높았다. 이는 기혼여성이 가정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평숙(1984)의 연구에서도 생활사건과 생활변화의 정도는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증상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4. 가족체계, 결혼만족도와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가족체계와 결혼만족도, 디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윤희(1989), 김정옥(1995)의 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 적응성이 높은 경우 부부적응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결혼만족과 응집성, 적응성은 선형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규련(1995)의 연구에서는 응집성, 적응성이 높을수록 부부 모두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arrel과 Barnes(1993)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만족은 가족응집성과는 선형적 관계에 있으나 적응성 수준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디스트레스의 경우는 응집성이 높을수록 부부 모두 우울 수준이 낮았으나, 적응성은 부인의 우울과만 선형적 관계에 있었다.

한편 결혼만족도와 디스트레스의 관계는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 결혼의 질이 심리적 불안, 우울 등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고은숙·김명자, 1993; Gove, Hughes와 Style, 1983; Williams, 1988). 특히 결혼의 질은 여성에게 더욱 영향을 미쳐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건강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김명자·박성연, 1989; 최규련, 1993; Voydanoff와 Donnelly, 1989). 또한 황현주(1994)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결혼만족도도 남편의 복지감 및 우울감 등의 정신건강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가족체계는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디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결혼만족도는 디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조사대상자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부부쌍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5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친 후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

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700쌍의 부부를 표집하여 527쌍의 질문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부부중 한 사람이 빠져거나 기재사항이 많이 누락된 것은 생략하고 434쌍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질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응집성·적응성 척도, 결혼만족도 척도, 디스트레스 척도로 구성하였다.

1)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척도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척도는 Olson, Portner와 Laves(1985)가 제작한 부부용 가족의 응집 및 적응 평가척도(Family Cohesion Adaptability Evaluation Scale III)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응집성 10문항, 적응성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집과 적응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 작성을 위하여 문항분석을 실시한 결과 응집성·적응성 척도는 전체에 대한 문항별 상관계수가 $r=.386$ 이상으로 나타나 20문항을 모두 사용하였다.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내적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2)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 척도는 Olson 등(1982)의 ENRICH (Enriching & Nurtu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의 하위영역인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척도를 수정하여 11문항으로 작성하였다. 이 영역에는 인성 특성, 역할책임, 의사소통, 갈등 해결, 재정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여가시간 관리, 성 관계, 배우자 책임, 가족관계, 친구관계, 그리고 종교영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아주 불만족에 1점, 아주 만족에 5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변 인 | 구 분 | 빈 도 | 백분율 | 변 인 | 구 분 | 빈 도 | 백분율 |
|---------|----------|-----|------|---------|-----------|-----|------|
| 남 편 령 | 34세 이하 | 31 | 7.1 | 부 인 령 | 34세 이하 | 76 | 17.5 |
| | 35 - 39세 | 82 | 18.9 | | 35 - 39세 | 121 | 27.9 |
| | 40 - 44세 | 121 | 27.9 | | 40 - 44세 | 130 | 30.0 |
| | 45 - 49세 | 112 | 25.8 | | 45 - 49세 | 73 | 16.8 |
| | 50세 이상 | 88 | 20.3 | | 50세 이상 | 34 | 7.8 |
| 남 편 학 력 | 초등학교 | 10 | 2.3 | 부 인 학 력 | 초등학교 | 25 | 5.8 |
| | 중 학교 | 41 | 9.4 | | 중 학교 | 80 | 18.5 |
| | 고등학교 | 185 | 42.6 | | 고등학교 | 197 | 45.5 |
| | 전문대학 | 29 | 6.7 | | 전문대학 | 32 | 7.4 |
| | 대 학교 | 137 | 31.6 | | 대 학교 | 92 | 21.2 |
| | 대 학 원 | 32 | 7.4 | | 대 학 원 | 7 | 1.6 |
| 남 편 종교 | 기독교 | 37 | 8.5 | 부 인 종교 | 기독교 | 55 | 12.7 |
| | 천주교 | 33 | 7.6 | | 천주교 | 47 | 10.8 |
| | 불 교 | 211 | 48.6 | | 불 교 | 229 | 52.8 |
| | 무 교 | 151 | 34.8 | | 무 교 | 100 | 23.0 |
| | 기 타 | 2 | 0.5 | | 기 타 | 3 | 0.7 |
| 자녀수 | 1명 이하 | 76 | 17.5 | 월평균 소득 | 150만원 미만 | 69 | 15.9 |
| | 2 명 | 229 | 52.8 | | 150-200만원 | 108 | 24.9 |
| | 3명 이상 | 129 | 29.7 | | 200-300만원 | 158 | 36.4 |
| | | | | | 300-400만원 | 61 | 14.1 |
| | | | | | 400만원 이상 | 38 | 8.8 |
| 가 족 형태 | 핵 가족 | 370 | 85.3 | 주 부 직업 | 있 다 | 227 | 52.3 |
| | 확대가족 | 64 | 14.7 | | 없 다 | 207 | 47.7 |

*빈도 합계가 다른 것은 missing data에 의한 것임.

〈표 2〉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 | 가족 응집성 | 가족 적응성 | 결혼 만족도 | 심리적 디스트레스 | 신체적 디스트레스 |
|----|--------|--------|--------|-----------|-----------|
| 남편 | .825 | .679 | .887 | .880 | .859 |
| 부인 | .827 | .602 | .873 | .878 | .869 |

문항분석 결과 전체에 대한 각 문항의 상관계수는 $r = .441$ 이상으로 나타나 11문항을 모두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표 2〉와 같다.

3) 디스트레스 척도

디스트레스 척도는 Pearlin 과 Johnson(1977)의 우울척도, Birkowity 와 Perkins의 디스트레스 척도, 권경희(1985), 조희선(1991)의 연구를 참고로 22문항을 작성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로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경우가 전혀 없으면 1점, 거의 항상 경험하면 4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디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한 후 varimax회전 방법으로 직교 회전하였다. 그 결과 eigen value 1.0이상이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나 2개의 범주로 지적하여 2요인을 채택하였다. 1요인(12문항)은 불안, 우울, 자존감 상실, 심인성 장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심리적 디스트레스라 명명하였으며 설명변량은 38.5%였다. 2요인(10문항)은 두통, 요통, 구토, 심장장애 등 신체기관의 고통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체적 디스트레스라 명명하였으며 설명변량은 6.6%로 총 설명변량은 45.1%였다.

측정도구 작성을 위하여 문항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에 대한 문항별 상관계수가 $r=.397$ 이상으로 나타나 22문항을 모두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표 2>와 같다.

3. 자료분석

측정도구 작성을 위해서는 문항분석, 내적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증(cronbach α), 그리고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평균, 표준편차, t-test, MANOVA, 사후검증으로 scheffe-test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인과관계 검증을 위하여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과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가족적응성, 가족응집성, 결혼만족도와 디스트레스 수준

가족적응성, 가족응집성, 결혼만족도와 디스트레스 수준을 알아보고 부부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와 같이 부부의 응집성 수준은 남편·아내 모두 3.4로 중간보다 높았으나, 적응성 수준은 2.5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응집성의 경우는 이숙현·민혜영(1985), 김수연·김득성(1994)의 연구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적응성은 이들 연구보다 훨씬 낮았다. 부부간의 비교

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한 가정의 부부쌍을 표집하였으므로 부부간에 가족체계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혼만족도 수준은(5점 만점에 남편은 $M=3.47$, 부인 $M=3.30$) 중간 이상으로 나타나 김양희 외(1992), 문경실(1995), 고정자(1998)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부부간의 차이는 $P<.001$ 수준($t값=4.05$)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남편이 부인보다 결혼생활에 더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고정자, 1998; 김순주, 1994; 김양희 외, 1992; 문경실, 1995; 최규련, 1988, 1993, 1995; Vannoy와 Philliber, 1992)와 일치하였다.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 수준은 모두 평균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나, 부부간의 비교에서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보다 부인의 디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인들이 심리적으로 더 우울하고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신체적인 장애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동숙(1989), 고은숙·김명자(1993), Pearlin과 Johnson(1977), Williams(1988)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남녀간의 성차에 따른 역할 및 지위의 상이함과 역할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Gore와 Mangione(1983)의 사회역할이론과 성역할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2. 가족적응성 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디스트레스의 차이

적응성 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디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석을 한 결

<표 3> 응집성, 적응성, 결혼만족도, 디스트레스 수준

| | 가족응집성 | | 가족적응성 | | 결혼만족도 | | 심리적디스트레스 | | 신체적디스트레스 | |
|-----|-------------|------|-------------|------|-------------|------|-------------|------|-------------|------|
| | M(5점만점) | SD | M(5점만점) | SD | M(5점만점) | SD | M(4점만점) | SD | M(4점만점) | SD |
| 남편 | 33.99(3.40) | 7.06 | 25.23(2.52) | 5.32 | 38.19(3.47) | 6.65 | 18.34(1.53) | 5.10 | 15.35(1.53) | 4.36 |
| 부인 | 34.47(3.48) | 7.12 | 25.47(2.55) | 4.92 | 36.33(3.30) | 6.84 | 19.75(1.64) | 5.58 | 16.92(1.69) | 4.77 |
| t 값 | -.98 | | -.69 | | 4.05*** | | -3.88*** | | -5.06*** | |

*** $P<.001$

과(표 4) 남편, 부인 모두 주 효과(남편: $F=8.68$, $P<.001$, 부인: $F=7.39$, $P<.001$)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종속변인별 단변인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표 5〉에서와 같이 남편은 결혼만족도, 신체적 디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부인의 경우는 결혼만족도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적응성이 우울정도와 선형적 관계에 있다는 Farrel과 Barnes(1993), 최규련(1995)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집단간의 구체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경우 경직집단과 구조적, 융통적, 매우 융통적 집단간에, 그리고 구조적 집단과

매우 융통적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다. 즉 적응성이 높은 집단의 남편이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부인의 경우는 융통적, 매우 융통적 집단과 경직, 구조적 집단간에 차이를 보여 적응성이 높을 때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따라서 남편, 부인 모두 적응성이 높은 집단에서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있어 김정옥(1995), 최규련(1995)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Beaves와 Voeller(1983)는 적응을 성장의 관점으로 개념화하고 적응력이 증가하면 가족이 보다 기능적으로 된다는 선형적 관계를 주장하고 있어 본 연구와 일치하였으나, Olson의 순환모델의 곡선적 가설을 기각하였다. 또한 Farrel과 Barnes(1993)의 연구와도 차이를 보였다.

〈표 4〉 가족적응성 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디스트레스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 결과

| | Effect | Wilks | Approx. F | Hypoth. DF | Error DF | Sig. of F |
|-------|--------|-------|-----------|------------|----------|-----------|
| 가족적응성 | 남편 | .84 | 8.68 | 9.00 | 1036.92 | .000 |
| | 부인 | .86 | 7.39 | 9.00 | 1034.49 | .000 |

〈표 5〉 가족적응성 수준별 결혼만족도, 디스트레스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 결과

| 대상 | 종속변인 | Hypoth. SS | Error SS | Hypoth. MS | Error MS | F | Sig. of F |
|----|-----------|------------|----------|------------|----------|-------|-----------|
| 남편 | 결혼만족도 | 2122.59 | 16909.08 | 707.53 | 39.51 | 17.91 | .000 |
| | 심리적 디스트레스 | 76.17 | 11110.49 | 25.39 | 25.96 | .98 | .403 |
| | 신체적 디스트레스 | 215.56 | 7990.36 | 71.85 | 18.67 | 3.85 | .010 |
| 부인 | 결혼만족도 | 2053.35 | 1866.54 | 684.45 | 42.31 | 16.18 | .000 |
| | 심리적 디스트레스 | 107.59 | 13257.84 | 35.87 | 31.05 | 1.16 | .327 |
| | 신체적 디스트레스 | 98.97 | 9693.50 | 32.99 | 22.70 | 1.45 | .227 |

〈표 6〉 가족적응성 수준별 결혼만족도, 디스트레스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 종속변인 | 남편 | | | | | | 부인 | | | | | |
|-----------|----------|-------|---|----|-----|----|----------|-------|---|----|-----|----|
| | 집단 | 평균 | I | II | III | IV | 집단 | 평균 | I | II | III | IV |
| 결혼만족도 | 경직(I) | 33.45 | | | | | 경직(I) | 32.67 | | | | |
| | 구조적(II) | 37.47 | * | | | | 구조적(II) | 35.29 | | | | |
| | 융통적(III) | 39.36 | * | | | | 융통적(III) | 37.48 | * | * | | |
| | 매우융통(IV) | 41.48 | * | * | | | 매우융통(IV) | 40.16 | * | * | | |
| 신체적 디스트레스 | 경직 | 15.02 | | | | | | | | | | |
| | 구조적 | 14.98 | | | | | | | | | | |
| | 융통적 | 15.16 | | | | | | | | | | |
| | 매우융통 | 17.03 | * | * | | | | | | | | |

한편 신체적 디스트레스는 부인의 경우 집단간 차이가 없었으나, 남편의 경우는 구조적 집단, 융통적 집단과 매우 융통적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적응성이 높은 집단의 남편들이 신체상의 장애를 더 많이 호소하였다.

3. 가족응집성 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디스트레스의 차이

응집성 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디스트레스 수

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석을 한 결과(표 7) 남편, 부인 모두 주 효과(남편: $F=24.78, P<.001$, 부인: $F=23.95, P<.001$)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종속변인별 단변인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표 8〉에서와 같이 남편은 결혼만족도,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부인의 경우는 결혼만족도와 심리적 디스트레스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집단간의 구체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 7〉 가족응집성 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디스트레스에 대한 다변인변량분석 결과

| | Effect | Wilks | Approx. F | Hypoth. DF | Error DF | Sig. of F |
|-------|--------|-------|-----------|------------|----------|-----------|
| 가족적응성 | 남편 | .62 | 24.78 | 9,00 | 1036,92 | .000 |
| | 부인 | .63 | 23.95 | 9,00 | 1032,06 | .000 |

〈표 8〉 가족응집성 수준별 결혼만족도, 디스트레스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 결과

| 대상 | 종속변인 | Hypoth. SS | Error SS | Hypoth. MS | Error MS | F | Sig. of F |
|----|-----------|------------|----------|------------|----------|-------|-----------|
| 남편 | 결혼만족도 | 6888.20 | 12143.47 | 2296.07 | 28.37 | 80.93 | .000 |
| | 심리적 디스트레스 | 761.31 | 10425.34 | 253.77 | 24.36 | 10.42 | .000 |
| | 신체적 디스트레스 | 223.29 | 7892.63 | 114.43 | 18.65 | 3.99 | .008 |
| 부인 | 결혼만족도 | 7110.33 | 13009.11 | 2370.11 | 30.54 | 77.61 | .000 |
| | 심리적 디스트레스 | 457.98 | 12905.88 | 152.66 | 30.30 | 5.04 | .002 |
| | 신체적 디스트레스 | 149.19 | 9627.86 | 49.73 | 22.60 | 2.20 | .087 |

〈표 9〉 가족응집성 수준별 결혼만족도, 디스트레스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 종속변인 | 남편 | | | | | | 부인 | | | | | |
|-----------|----------|-------|---|----|-----|----|----------|-------|---|----|-----|----|
| | 집단 | 평균 | I | II | III | IV | 집단 | 평균 | I | II | III | IV |
| 결혼만족도 | 과잉분리(I) | 31.18 | | | | | 과잉분리(I) | 30.02 | | | | |
| | 분리(III) | 36.09 | * | | | | 분리(II) | 34.52 | * | | | |
| | 연결(III) | 40.31 | * | * | | | 연결(III) | 38.39 | * | * | | |
| | 매우연결(IV) | 44.16 | * | * | * | | 매우연결(IV) | 42.35 | * | * | * | |
| 심리적 디스트레스 | 과잉분리 | 19.79 | | | | | 과잉분리 | 21.01 | | | | |
| | 분리 | 19.66 | | | | | 분리 | 20.55 | | | | |
| | 연결 | 17.58 | * | * | | | 연결 | 19.13 | | | | |
| | 매우연결 | 16.17 | * | * | | | 매우연결 | 18.19 | * | * | | |
| 신체적 디스트레스 | 과잉분리 | 16.16 | | | | | | | | | | |
| | 분리 | 15.79 | | | | | | | | | | |
| | 연결 | 15.27 | | | | | | | | | | |
| | 매우연결 | 13.79 | * | * | | | | | | | | |

Scheffe-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결혼만족도는 남편·부인 모두 과잉분리, 분리, 연결, 매우 연결집단의 각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응집성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남편의 경우 과잉분리집단과 연결집단, 매우 연결된 집단간에 그리고 분리집단과 연결집단, 매우 연결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부인의 경우 과잉분리 집단, 분리집단과 매우 연결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응집성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은 낮았다. 이는 응집성이 높을수록 부부의 우울 수준이 낮다는 Farrel과 Barnes(1993)의 연구와 일치한다.

신체적 디스트레스는 부인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남편의 경우는 과잉분리, 분리집단과 매우 연결된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 응집성이 높은 집단이 신체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낮았다.

이상에서와 같이 가족응집성이 높을 때 결혼만족도가 높고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체계의 선형성을 지지하였다.

4. 가족응집성, 적응성, 결혼만족도와 디스트레스간의 인과관계

가족응집성, 적응성, 결혼만족도와 디스트레스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참고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가족응집성, 적응성을 독립변수로, 결혼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고,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인과모형을 설정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는 β 계수로 나타내었으며, .05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인만을 도식화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과 <그림 1, 2>에 제시되어 있다.

경로분석에 앞서 변인들간의 상관분석과 Durbin-Watson test를 한 결과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이 충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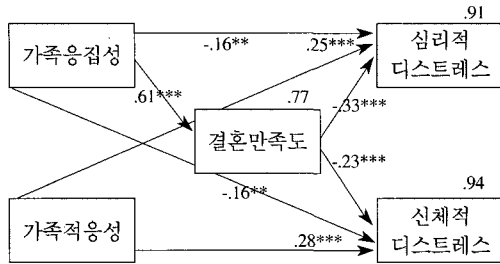
<표 10>과 <그림 1, 2>에서와 같이 남편·부인 모두 가족응집성만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남편의 경우 가족응집성, 적응성, 결혼만족도 변인 모두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16.5%, 신체적 디스트레스는 11.3%였다. 즉 응집성이 낮을수록, 적응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남편의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 수준은 높았다. 또한 가족응집성은 결혼만족도를 통하여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응집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으며 이것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는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부인의 경우 심리적 디스트레스에는 결혼만족도($\beta=-.57$)와 가족응집성($\beta=-.14$)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28%이었다. 즉 가족응집성과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심리적 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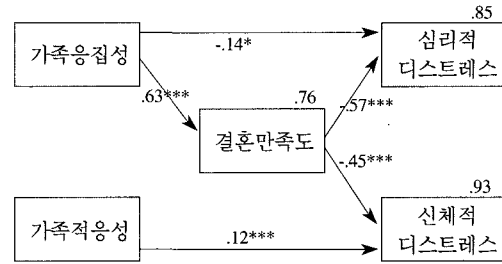
<표 10>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 변 인 | 남 편 | | | 부 인 | | |
|----------------|----------------------|-------------------------|-------------------------|----------------------|-------------------------|-------------------------|
| | 결혼만족도 (β) | 심리적 디스트레스(β) | 신체적 디스트레스(β) | 결혼만족도 (β) | 심리적 디스트레스(β) | 신체적 디스트레스(β) |
| 가족응집성 | .606*** | -.16** | -.16* | .63*** | -.14* | .10 |
| 가족적응성 | .056 | .25*** | .28*** | .03 | .08 | .12* |
| 결혼만족도 | | -.33*** | -.23*** | | -.57*** | -.449*** |
| 회귀상수 | 17.04 | 25.87 | 18.61 | 14.41 | 30.54 | 23.03 |
| R ² | .404 | .165 | .113 | .42 | .28 | .143 |
| F 값 | 145.79*** | 28.18*** | 18.30*** | 152.93*** | 41.84*** | 23.77*** |
| D-W 값 | 2.02 | 1.89 | 1.84 | 2.00 | 1.87 | 1.85 |

* P<.05 ** P<.01 ***P<.001



<그림 1> 남편의 인과모형



<그림 2> 부인의 인과모형

트레스는 높았다. 신체적 디스트레스에는 결혼만족도($\beta = -.45$)와 적응성($\beta = .12$)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적응성이 높을수록 신체적 디스트레스가 높았다. 또한 가족응집성은 결혼만족도를 통하여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며, 이것이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진다.

이상에서와 같이 남편·부인 모두 결혼만족도 변인이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황현주(1994), 고은숙·김명숙(1993), 최규련(1993), Vadanoff 와 Donnelly(1989)의 연구와 일치하며,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가장 설명력이 높았다. 이는 결혼의 질이 기혼여성의 정신건강을 결정하는데 중요 요소라 한 Gove, Hughes, Style(1983)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및 신체적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적응성은 높을수록 우울 및 불안증세가 높으며 신체적 장애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응집성은 결혼만족도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와는 선형적 관계에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는 김윤희(1989), 김정옥(1995), Farrel과 Barnes(1993)의 연구와 일치를 보인다. 이는 우리 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상 가족들이 역할이나 규칙에 변화지향적이기 보다는 안정지향적이며, 가족간의 유대가 긴밀할수록 기능적인 가족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집' 중심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한 가정의 부부쌍으로 부산시에 거주하는 434부부쌍이었다. 척도는 가족적응성, 응집성 척도, 결혼만족도 척도와 디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t-test, MANOVA, scheffe-test,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그리고 경로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남편이 부인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으며,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가족적응성 수준에 따른 차이는 남편·부인 모두 적응성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적응성 수준에 따라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부부 모두 차이가 없었으며, 신체적 디스트레스는 남편의 경우만 차이를 보였다. 즉 적응성이 높은 집단에서 신체적 장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가족응집성 수준에 따른 차이는 남편의 경우 응집성 수준이 높은 집단이 결혼만족도가 높고,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 수준은 낮았다. 부인의 경우는 응집성이 높은 집단에서 결혼만족도가 높고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은 낮았으나 신체적 디스트레스 수준은 차이가 없었다.
- 네째,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이 결혼만족도와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살펴본 결

과, 남편의 경우는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그리고 결혼만족도 변인 모두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가족응집성은 결혼만족도를 통해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부인의 경우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응집성, 결혼만족도였으며, 신체적 디스트레스에는 적응성과 결혼만족도 변인이 직접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가족응집성은 결혼만족도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연구에서 결혼만족도 변인이 부부의 정신건강 및 신체적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의 질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부부의 건강 수준 및 전체 가족의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부부관계 개선 및 향상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나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가족체계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가족응집성이 우리 나라 가족기능을 보다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고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형적 관계가 입증되었다. 그러나 적응성의 경우는 적응성이 높을수록 오히려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양과의 문화적인 차이에 따른 것과 FACEⅢ 중 적응성 척도는 선형적 문항과 비선형적 문항을 함께 가지고 있어 일관성이 없는(김득성·김수현, 1993; Hampson, Hulgus & Beavers, 1991) 질문지의 제한점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순환모델에서 주장하는 곡선관계와 체계모델에서 주장하는 적응력과 가족기능간의 직선관계가 모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Olson의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Beavers의 체계모델도 같이 적용시켜 가족특성에 따라 어느 모델이 더 잘 적용될 수 있는지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에 대해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나라의 사회문화

적 특성에 맞는 질문지 개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적응성, 응집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가족체계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적응성, 응집성 수준과 더불어 가족체계유형별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고은숙·김명자(1993). 취업부인의 스트레스원, 내외통제성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45-60.
- 2) 고정자(1998). 맞벌이부부의 직업관련변수가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4), 163-178.
- 3) 권경희(1985). 한국도시 주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수연·김득성(1993).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 순환모델의 곡선성 대 선형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30-39.
- 5) 김수연·김득성(1994). 맞벌이부부의 응집 및 적응이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2(3), 121-134.
- 6) 김경신·김오남(1996). 맞벌이부부의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18.
- 7) 김순주(1994). 가정 내 남편의 역할수행에 대한 부부의 기대 및 평가와 결혼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8) 김양희·박충선·서동인·신화용·조병은·최규련(1992). 학동기자녀를 둔 맞벌이가족의 가족관계와 정책적 제언, 대한가정학회지 30(3), 285-305.
- 9) 김화자·윤종희(199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09-224.
- 10) 김정옥(1995). 가족스트레스, 가족체계유형, 가족복지와의 관계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3(3), 101-112.

- 11) 문경실(1995). 남편의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김윤희(1989). 부부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 자녀의 비행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13) 박미령(1987). 한국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4) 신기영·육선화(1997).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 수행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111-128.
- 15) 이숙현·민혜영(1985). 가족체계유형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집 6, 215-226.
- 16) 이평숙(1984).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량 측정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7) 장재정(1987). 중년 여성의 성역할 정체감 및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8) 장진경(1995). 가족적응력과 가족기능과의 관계: Olson의 순환모델의 곡선성과 Beavers의 체계모델의 선형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1-14.
- 19) 전영자(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및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323-343.
- 20) 조희선(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 21) 전귀연·최보가(199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부모-청소년기 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3), 157-173.
- 22) 최규련(1987). 한국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3) 최규련(1993).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61-84.
- 24) 최규련(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98-114.
- 25) 최동숙(1989). 부부간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디스트레스 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1), 165-179.
- 26) 한경미(1995). 기혼 취업여성의 가정, 직업, 여가 생활만족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47-57.
- 27) 홍윤정(1996).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과 공평성 인지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8) Beavers, W. R., Hampson, R. B., & Hulgus, Y. F.(1985). Commentary: The Beavers system approach to family assesment. *Family Process*, 24, 398-405.
- 29) Berry, R. E. & Williams, F. L.(1987).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marital and income satisfaction: A path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9 (Feb.), 107-116.
- 30) Farrel & Barnes(1993). Family system and social support: A test of the effects of cohesion and adaptability on the functioning of parents and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9 (Feb.), 107-116.
- 31) Gore & Mangione(1983). Social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dditive and interactive models of sex differenc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301.
- 32) Hirsch, B.j & Rapkin, B. D.(1986). Multiple roles, social networks, and woman's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237-1247.
- 33) Houseknecht, S. K. & Macke, A. S.(1981). Combining marriage and career: The marital adjustment of professional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3(Aug.), 675-691.
- 34) Joe, F. Pittman, Sally, A. Lloyd(1988). Quality of family life, social support, and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0(Feb.), 53-67.
- 35) Jones, F., & Flectcher, B. C.(1993). An employ-

- ment study of occupational stress transmission in working couples, *Human Relation*, 46(7).
- 36) Mills, R.J., Grasmick, H. G., Morgan, C. S. & Wenk, D.(1992). The effect of gender, family satisfaction, and economic strain on psychological well-being, *Family Relation*, 41, 440-445.
- 37) Olson, D. H., Sprenkle, Russel(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family systems: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3-28.
- 38) Olson, D. H. & Barenes, H.(1982). *Family inventory of quality of life*.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The University of Minnesota.
- 39) Olson, D. H.(1991). Commentary: Three dimensional(3-D) circumplex model and revised scoring of FACES III. *Family Process*, 30, 74-79.
- 40) Perosa, L. M., & Perosa, S. L.(1990). The use of a popular item format for FACES III: A reconsider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Therapy*, 16(2), 187-199.
- 41) Plarr, D. M., & Hansen, J. C.(1987). A test of curvilinear hypothesis with FACES II and III.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Therapy*, 13(4), 387-392.
- 42) Ulbrich, P. M.(1988). The determinants of depression in two-income marriag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0(Feb.), 121-131.
- 43) Vannoy, D. & Philliber, W.(1992). Wife's employment and quality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4(Feb.), 387-398.
- 44) Voydanoff, P. & Donnelly, B. W.(1989). Work and family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1(Nov.), 923-932.